

달님에게 소망 빌어 봐!!!

민속박물관, 남산한옥마을 등 전통놀이 풍성 화왕산 '역새풀 태우기' 3년만에 다시 점화

15일은 정월 대보름날. 조상들은 새해 첫 보름인 이날 동신에 올라 떠오르는 보름달을 맞이하며 소원을 빌었고, 달집태우기와 쥐불놀이를 하며 한해의 풍년과 건강을 기원했다. 대보름날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전통놀이를 즐기며 보름달을 맞을 수 있는 곳으로 나들이를 가 보는 것은 어떨까. 부모들은 어릴적 추억을 되살리고 자녀들에게 세 시풍속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속박물관회는 16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소지 끼우기', '달집 태우기' 등 소원빌기 행사를 펼친다. 대보름날인 15일에는 박물관에서 시작해 광화문을 거쳐 돌아오는 대보름맞이 풍물굿을 열고, 낮 12시에는 엄마와 함께 배우는 풍물마당도 마련했다. 박물관 앞마당에서는 투호, 팽이치기, 제기차기 등의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으며 떡과 부럼 등을 파는 난전도 볼 수 있다.(02)734-1341

국립중앙극장은 15일 예약당에서 대보름맞이 무용극 '늑다리 밟기' 등을 무대에 올리고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달집태우기'와 '오곡밥 만들기' 등이 열린다.(02)2266-6937-8 용인 한국민속촌은 15일까지 농악, 널뛰기, 줄타기 등 공연과 가족대항 민속놀이 경연 등을 벌인다.(031)286-2111

지방 자치단체와 문화원 등도 다양한 문화행사와 지역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풍년을 기원하고 마을의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해 14~15일 관내 칠석동 고싸움놀이 전수관에서 '제21회 고싸움 축제'를 연다. 고싸움 놀이는 광주 남구 칠석동 칠석마을에서 대보름날 실시되는 세시풍속의 하나로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은 16일 박물관 광장에서 당산제와 달집 태우기, 민속공연 등으로 구성된 '제8회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연다.(062)651-9020

충북 제천문화원은 15일 제천시 모산동 의림지 공장 일대에서 지게 목발 걷기, 옛치기, 제기 차기, 널뛰기 등이 펼쳐지는 '정월대보름 축제'를 개최한다.(043)642-3646 또 충북 단양군은 15~16일 단양읍 수변무대와 경비행장 일원에서 '제5회 단양 전통 연 날리기 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회에서는 제기 차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의 전야 행사와 장차 연날리기, 장작연 전시회 등이 펼쳐진다.(043)422-3011

경남 창원군과 배바우산악회는 국내 최대 역사군락지인 화왕산 정상 '역새풀 태우기 행사'를 3년 만에 개최한다. 화왕산 축제는 풍년 농사와 사회 안정을 기원하고 주민들의 소원성취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해 벌이는 행사로, 보름달이 뜨기 전 대형 달집과 돌레 2.7km의 화왕산 성내 5만6000평의 마른 역새풀을 태우는 행사다.(055)530-2241

여수령 기자



집에서 만드는 사찰음식

망공 찰떡

잡쌀 5컵, 생망공 5컵, 소금 약간

1. 찰쌀은 12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소금을 넣어 곱게 빨아 체에 내린다.
2. 망공은 겉껍질만 벗겨 물에 불렀다가 씻어 체에 건진 후 찰쌀가루에 버무린다. 단맛을 좋아한다면 설탕

1컵 정도를 함께 버무린다. 3. 시루에 찰호지나 후, 호박잎 등을 깔고 ②를 올린 후 찌는 행주를 덮어 30분 정도 찌 충분히 뜬을 들인다.

<자료제공=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



클릭!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분청다기

도예가 임남재 작품

마하물 한정 판매

'분청다기'는 행천 도예연구원 임남재 원장의 작품으로, 다관 1개, 수구 1개, 찻잔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거칠면서도 질박한 아름다움을 가진 분청다기는 불교전통



소필품 마하물에서 40세트 한정 판매하고 있다. 오동나무 상자 포함. 값 9만 8천원. (02)732-1520

소설가 남지심의 化緣에서 찾은

내 안의 너 안의 나

수행의 도약

자신의 아들이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난 후, 지나라하게 드러난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어 괴롭다고 하는 40대 중반의 남자가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분은 저와 인사가 끝나자 저를 찾아 온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같은 과 친구를 따라 절에 갔다가 불교와 첫 인연을 맺었으니 제가 불교와 인연을 맺은 지도 어언 25년이 되었군요. 25년 동안 제 신심이 여윌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저는 변함없이 부처님 제자라는 확신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을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에 두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도 안락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신념 속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수행도 하려고 애를 썼고, 경전공부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애를 써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은 물론 제 가족들도 가능한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만들고, 윤회가 고통을 만들면서 끝없이 회전하기 때문에, 회전하는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않고선 자신 안에 있는 고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 그 일을 실천에 옮겨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어느 정도는 성취했다는 자신감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들의 대학입시를 거치면서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희망한 대학에 낙방했음을 안 순간 제 안에 있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격렬한 감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저는 제 자신한테 들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희망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제 자신한테 솔직하려고 노력하며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 그 '희망'은 '군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제치고 군림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명예와 직위

대가없는 결과·발전은 없어

아들이 대학입시에 실패하자 제 속에 있던 모든 것이 지나라하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삼독심의 명어리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부합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이 아무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너무도 허무해서 선생님과 얘기가 좀 하려고 이렇게 찾아 왔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들려주신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분은 25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성불이라는 과제를 안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고 합니다. 처음엔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 경전공부를 집중적으로 했고, 그다음엔 기도를 생활화해야겠다는 생각에 금강경독송과 사경을 해오고 있었다 했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금강경 독송으로 시작하는 그분은 반야심경 사경을 3천번, 법화경 사경을 10편 한 후, 지금은 금강경 사경 천 번을 목표로 사경을 하고 있었다했습니다.

수행을 계속하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탐·진·치를 어떻게든 자신 안에서 제거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고 합니다. 삼독심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탐·진·치가 업을 만들고, 업이 윤회를

그리고 풍요를 누리며 사는 것, 제가 아들한테서 바라고 있던 것은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제 자신한테서 제거 하려고 노력했던 탐심이 그대로 안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음을 안 순간 저는 운 몸에 힘이 쭉 빠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기가 막힌 것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의 딸이 대학입시에 합격했음을 알고서도 흔쾌히 축하전화가 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제 자신이 너무도 괴로워서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25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제 안에 있는 탐심·진심·치심을 없애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것들은 마치 저를 비롯키라도 하듯 제 자라들을 굳건히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난 저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탐·진·치·삼독심 때문에 주먹으로 가슴을 치고 싶었다면 그것이야말로 25년 동안 수행을 해 온 결실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아들의 대학입시 실패가 자신 안에 내재해 있는 삼독심을 비추보는 거울이 되었다면, 괴롭긴 해도 그건 오히려 그 분에게 내리친 불보살님의 가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어떻게 중생인 우리들이 수행의 도약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化緣 (02)704-

제8회 현대불교 신행수기 당선작 (중단협의회장상)

불국토 이룩하는 그날까지

이원규(서울 광진구 자양2동)

우리 가족은 1988년, 그러니까 올림픽을 개최하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에 1분자리 소형트럭에 기본적인 생필품 몇 가지만을 싣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께서 중동에서 근무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져 귀국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몇 해를 집 안에서만 생활하게 되었다. 가게는 점점 궁핍해졌고, 설상가상으로 몇 개 되지 않던 살림살이마저 빛보증으로 다 잃어버렸다. 아버지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나서, 예전 직장상사의 부름으로 부천에 일자리를 잡으셨고, 때마침 사업이 잘 되던 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우리 가족은 상경해 작은집과 함께 살림을 하게 되었다.

처음엔 작은집 식구들의 배려가 마냥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개종'이라는 또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자 정신적으로 힘들게 수밖에 없었다. 아침이면 안방(작은집)에서는 찬송가가 동네가 떠나갈 듯 울려 퍼졌다. 우리 식구가 있는 방에서는 천수경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가운데 하루가 시작했다. 일상생활이 되어버린 아침기도는 베란다 한쪽에서 향을 사르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했다. 소위 동생에게 알려산다는 강박감에 아마도 아버지는 더 힘이 들었을 것이다.

종교의 차이라는 또다른 거리감에 우리 가족의 서울생활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

역시 공장일, 식당일을 가리지 않고 했고, 어린 나와 동생도 서울 아이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다. 결국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은 근처에 네 식구가 늘기에도 뻔뻔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했다. 정말 말 그대로 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좁은 방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행복기만 했다. 이제는 향도 마음껏 사를 수 있었고, 카세트에 찬불기도 마음껏 들 수가 있었다. 그렇게 10여년이 훌쩍 지나갔다.

우리 가족이 부처님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것은 대구에 있는 서봉사에서다. 서봉사는 나와 4살 어린 여동생에게는 외가집 같은 곳이다. 주지스님을 비롯하여 지금은 각 처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는 명승, 명열, 명연 스님 등은 부처님이라는 가장 아래 서로 들어주고, 이끌어주시는 가족과 같은 분들이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모님에게는 친절한 조언자이셨고, 어린 나와 동생이 마음껏 뛰어놀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스승과 같은 존재였다. 잠자리에서 연탄가스를 마시고 질식해 갈 때, 내 동생의 꿈에 나타나 우리 가족을 깨워 목숨을 건져 준 분도 서봉사 스님들이다. 내가 뛰어놀다가 빈혈로 쓰러졌을 때 보살펴주신 분 역시 서봉사 스님들이다. 이렇게 나는 서봉사에서의 인연을 시작으로 부처님과 가까워졌고, 학교공부는 물론 모든 불교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서울에 처음 와서 인연을 맺은 곳은 봉은사다. 도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도 마치 산에 온 듯 웅장한 봉은사의 일요법회에 우리 가족은 빠지지 않

고 참석해 불심을 키워갔다. 그 때 안타깝게도 봉은사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고, 우리는 일주문 밖에서 야단법석(野壇法席)을 열어야 했다. 부처님을 찾아뵙고, 자기를 반성하며 돌아보고, 또 원을 세워 더 발전된 우리를 만들기 위해 법회를 하는 도

랑에서 그런 뜻하지 않은 이권다툼이 일어나니 어린 나에게는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부처님은 봉은사 법당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 마음속 어디에나 계시는 법. 안타깝게도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 가족은 꾸준한 법회에 참석했으며, 얼마 후

궁핍한 생활에도 법회참석 등 불심 키워 가정형편 더 어려워져 대학진학은...



그림 · 김홍인

엔 조계사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생활 틈틈이 조계사에서 열리는 교리강좌에 참석했고, 나와 동생은 어린이 법회, 학생 법회를 다녔다. 이제 불교는 시나브로 우리 가족의 일상생활에 자연스레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이었다. 그 새 아버지는 직장생활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조그마한 사업까지 시작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기존의 직장마저 상황이 좋지 않았다. 나 역시 사춘기시절 많은 갈등과 방황으로 성적이 떨어졌고, 결국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가 없었다. 사회는 어느 샌가 IMF라는 거대한 폭풍이 다가와 있었고, 나는 군 입대라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아버지 가업인 군대 이기에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아 가장 먼저 입대할 수 있는 해군을 지원했다. 수영도 잘 못하던 내가 배를 타는 군 생활을 지원할 때인데 그래도 군대를 다녀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지만 군대생활은 결코 만만치 않았고, 나는 소위 말해 군대에서 줄을 잘못 선 경우였다. 하지만, 그 힘들게만 여겨지던 군대에서도 부처님이 늘 내 가까이에, 내 마음속에 계시기에 나는 몸 건강하게 군 생활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제대를 해 집에 와 보니 내가 입대할 때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집안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2년 가까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조그맣게 운영하시던 분식가게로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제대를 하면 마음 굳게 먹고 공부해서 다시 한 번 대학에 도전해 보겠다는 내 생각은 이미 성인이 된 정남으로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계속)